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삼국시대 - 등잔 추정 이형토기 - 집모양토기 등잔 ①

삼국시대 주로 신라·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이형토기(異形土器)가 있다. 유물에 대한 쓰임새나 기능, 형태 등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이상한 모양이라는 뜻의 '이형(異形)'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오리모양토기[鴨形土器],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 말모양토기[馬形土器], 배모양토기[舟形土器], 서수형(瑞獸形) 또는 용형토기(龍形土器), 수레바퀴모양토기[車輪形土器], 신발모양토기[履形土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이들 토기 가운데 등잔으로 추정되는 몇몇 토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형토기는 일단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의례용 기물(器物)이나 명기(明器)로 보이는데, 그 형태에 따른 쓰임새를 가늠해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대체로 잔이나 등잔과 같은 용도로 추정하며, 제사용이나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잔이라면 보통 술이나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는 그릇을 일컫는데, 이들 이형토기들은 실제 잔으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형태와 장식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잔이 지닌 실용성과 적합성 등 기본 특성을 고려해보면 여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음료용 잔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곳에 두고 사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용도로 썼을까? 심사숙고해보면 등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등잔이라면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어느 한 곳에 두고 용기에 연료(기름)를 채워 주구(注口)쪽으로 심지만 빼면 별 어려움 없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들 토기들은 모두가 안정된 형태에서 한결같이 가운데나 꼬리부분 쪽에 구멍(開口)이 나있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점등(點燈)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실제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몇몇은 지금 써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등잔을 꺼묻거리(副葬品)로 묻었으며, 굳이 다른 양식과 결합하여 복잡한 형태를 취했을까? 우선 등잔(등불)은 죽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등잔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등잔의 실용적 기능을 넘어서서 길을 밝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저 세상에 대한 어둠의 세계를 밝히고자 하는 내세적 측면이 등잔(빛)을 매개로 수렴되어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의 처지에서 죽음에 대한 세계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재적 삶의 모습에서 저 세상을 기리는 것은 인류의 공통 관념이다. 이러한 내세관을 좀 더 확장하면 종교관으로 발전하지만, 종교 또한 근원적 의미에서 불(빛)이라는 매개와 상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왜 등잔의 형태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념의 틀이 염원 속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표현된 대상들은 모두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빛(불)이라는 등잔(등불)의 상징 속에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1)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16cm// 출토지 모름// 송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1쪽.

사진 2)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15.6cm// 출토지 모름// 호림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49쪽.

사진 3)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가야 5세기)// 높이 14.1cm, 입지름 7.7cm, 밑지름 8.3cm// 출토지 모름//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 디 아모레 뮤지엄,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품 도록>>, 2005, 219쪽.

사진 4)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12.5cm// 대구 현풍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1쪽.

사진 5)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20.3cm// 출토지 모름// 호암미술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49쪽.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사진10

이형토기의 형태를 보면 우선 집모양토기는 주거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거는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사는 환경과 삶의 문제를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따라 주거양식이 달라지고 주거의 형태 또한 차이가 난다. 집모양토기는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닥의 위치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지상가옥(地上家屋)의 형태를 지닌 것과 네 개의 기둥으로 받쳐 올린 고상가옥(高床家屋)의 형태를 지닌 것이 그것이다. 주로 고상가옥의 형태에서 잔이나 등잔의 형식을 띤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옥은 모두 속이 비고 지붕의 가운데쯤이나 가장자리 쪽에 굴뚝과 같은 그릇 아가리모양을 만들거나 한쪽 단벽의 높은 위치에 귀뚝(注口)을 만들어 그릇(잔이나 등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상가옥의 형태에서 굴뚝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이는 바와 같이 고상가옥에는 굴뚝이 없다. 고상가옥은 주로 강우량이 많고 습기가 많은 남방 아시아 지역의 주요 가옥형태이며, 따로 불을 피워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굴뚝을 설치하지 않는다. 덧붙여 집의 크기에 비해 굴뚝이 유독 큰 것도 사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용도나 기능으로 쓰기 위해 만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모양토기에서 보는 고상가옥은 다락집 형태에 원두막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집은 삼국시대 부경(扶京)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는 기록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다락집을 감안하면, 주거용이 아니라 곡식 등을 저장하던 창고로 보는 견해도 있다. 주거용이든 창고든 간에 이러한 집모양토기는 등잔의 형태를 빌어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신앙과 죽어서도 살아서와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는 믿음이 이러한 형태를 만든 까닭으로 보인다.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국립중앙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북천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6)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6세기)// 높이 11.9cm// 출토지 모름// 호암미술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48쪽.

사진 7)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4세기)// 높이 20.3cm// 경주 사라리 5호 출토//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0쪽.

사진 8)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11.5cm// 출토지 모름//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51쪽.

사진 9)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18cm, 너비 17cm//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출토// 북천박물관 소장

사진 10) 김해 봉황동 유적 고상가옥 복원 모습